

당대표 후보자 2인 <성평등정당 실현> 약속 자치단체장 여성 의무공천 · 광역의원 30% 이상 여성공천 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은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가 마련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과 성평등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에 서약했다.

8월 2일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 박찬대(기호순) 당대표 후보자들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정치인 비율 확대 방안에 동의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두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자치단체장 여성 의무공천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이상 여성 의무공천 이행 ▲정무직 당직자 여성 30% 이상 임명을 제안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자에게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자 100분의 10 이상을 의무공천 할 것과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자 100분의 20 이상을 의무공천 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광역단체장은 1995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명도 없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현재 225개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서도 후보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광역의원 30% 이상 여성 의무공천 이행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8조 제2항에는 여성자치단체장 30% 이상을 공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역의원 30% 이상 여성 의무공천, 당내 각급위원회 위원장 여성 30% 이상 의무공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 제2조에는 여성 30% 이상을 상설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새 당대표가 당원주권시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 당원주권 시대를 확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진정한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대표성 강화·여성정치인 비율 확대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한국 정치권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의 <성평등정당 실현> 약속 실천이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와 평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